세계의 붓다
마이클 조든 지음
전영택 옮김
궁리
2만3천원

자연석에 조각된 발우를 든 거대한 티베트 불상.

화강암에 조각된 스리랑카 갈비하라 석굴사원의 거대한 와불상(길이 14m).

온화·무뚝뚝·무념·매서움…

千의 얼굴 불상 따라 성지순례

미국 사진작가 스티븐 포가 자연과 합성한 불두모습. 이책의 표지사진이다.

인도에서 일본까지 14개국 사원서 찍은 불교 조각 · 건축물 사진 200여컷 수록

한 평범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이루어냈다. 그는 참된 고귀함을 얻었고 인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그가 바로 '고타마 싯다르타'이다.

영국 BBC 방송 등에서 작가와 방송인으로 활동한 마이클 조든이 지은 <세계의 붓다>는 불교미술을 따라 붓다의 행적을 좇고 세계 사원을 순례하며, 불교미술에 나타나는 상징과 유래를 밝힌 책이다. 특히 불교의 역사와 불교미술에 관해 총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설명돼 있어 책장이 술술 넘어간다. 하지만 이 책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글보다도 2백여컷에 달하는 사진들이다. 인도 네팔에서부터 한국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14개국의 사원을 찾아 불상과 탑, 석굴벽화 등 불교 조각과 건축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렇다고 이 책을 시종일관 리드하고 있는 사진들이 사원이나 박물관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터줏대감(?)들만은 아니다. 거대한 암벽, 산꼭대기, 강가 절벽 등지에 하늘이나 나무와 어울려 있는 불상과 사원의 사진들이 풍부하게 수록돼 있어 성지순례를 하고픈 유혹마저 빠져들게 한다.

그 유혹들중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2001년 파괴하기 전 모습의 바미얀 입불상(3~5세기)이 있는가 하면, 둥근 중국인의 얼굴 모습을 한 중국 하남성의 용문석굴, 절벽 전면의 자연석에 조각된 발우를 든 거대한 티베트 불상 등 온화하다가도 무뚝뚝하고 매섭기도 한 천의 얼굴들이 원색의 사진으로 가득하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기원전 6세기 중엽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들기까지의 붓다의 행적을 좇아 의미를 되짚었다. 특히 이 장에서는 불상이 제작되지 않았던 초기의 불교미술에서부터 춤추는 싯다르타를 묘사한 자유분방한 현대 조각상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출생과 고행 그리고 깨달음과 열반의 과정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2부에서는 붓다가 태어난 인도부터 네팔,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미얀마, 타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티베트,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까지 아시아를 가로질러 불교가 전래하고 발전한 과정을 추적한다. 그곳에서 만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 '비를 부르는 자세' 로 유명한 라오스의 불상 등은 눈여겨 볼만하다. 비록 책 속이지만 이 밖의 불상들도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섬세해 저절로 두손 모아 합장하고픈 환희심이 들게 만든다.

마지막 3부에서는 불상의 머리, 백호, 눈, 귀, 목, 손, 가사, 장신구, 앉은 자세, 대좌, 두광, 신광과 장식, 만다라 등 불상에서 나타나는 상징을 세세히 짚고, 부록으로 용어 설명과 본문에 나온 가볼만한 곳을 나라별로 정리했다. 특히 중간중간에 경전과 선사들이 남긴 말씀을 배치해 놓았다. "모든 붓다가 열반의 궁전에 장엄하게 자리하신 것은 욕심을 버리고 고행하셨기 때문이며, 모든 중생이 불타는 집에 갇혀 윤회를 거듭하는 것은 탐욕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원효 스님의 말씀도 들어 있다.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한번쯤 불교를 전반적으로 빠른 시간에 훑어보기에 적합한 대중적인 책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캐릭터마케팅 박소연 지음 | 소담 | 1만3천원

어릴 적 추억을 되돌아 볼 때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가슴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만화영화 주인공들이다. 최근에 이러한 만화의 향수를 다시금 되새겨 주는 캐릭터들이 다시 등장하여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상품에 사용되고 있다. 또 마시마로, 뿌까 등 새로운 특징 있는 캐릭터를 창조해서 바로 상품과 서비스 산업의 마케팅에 사용한 '캐릭터' 성공사례 이야기들이 종종 들리곤 한다.

바로 이러한 캐릭터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캐릭터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니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니 하는 매스컴의 부추김도 어느 정도 원인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근래의 움직임에 대해 얼마 전에 발행된 책을 한 권 소개하고자 한다.

서울여대에서 산업미술을 전공하고 바른손에서 활동하다가 현재 바른손카드와 위즈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박

캐릭터 산업, 뜨는 이유가 있지

소연 대표는 이러한 최근의 캐릭터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캐릭터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캐릭터마케팅>을 출간하였다. 캐릭터의 정의부터 시작해 국내외의 캐릭터 시장과 현황, 캐릭터 사업 및 캐릭터 개발사례, 그리고 캐릭터의 성공사례 등을 통해 캐릭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직접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캐릭터 제품의 기획, 생산, 유통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 및 캐릭터 제품의 생산조건과 마케팅 전략을 사실과 예시 중심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 캐릭터 마케팅 전문인으로 한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도움을 주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캐릭터의 정의를 다루는 캐릭터 이야기, 성공하는 캐릭터 디자인 비결 4가지, 캐릭터 마케팅에 대한 7가지 비결, 국내외에서 성공한 캐릭터 이야기, 인터넷과 사이버캐릭터시장의 관계, 무선인터넷과 연동되는 캐릭터 비즈니스 마케팅 제안을 통해 캐릭터비즈니스의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캐릭터를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캐릭터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실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저작권 사용계약서', 부비와 난타를 샘플로 한 자세한 캐릭터 사용매뉴얼 등을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캐릭터 업계의 종사자들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홍정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과장)

티벳 佛敎 성지순례
카일라쉬(수미산) 대탑사 24일 / 345만원
■ 5월 25일 - 출발 확정, 6월 23일, 7월 27일, 8월 3일
인천/선도-러사-장체-사가체-라체-사가-피망-다르첸-카일라스코라-구계왕국-마나사로버호수-피망-사가-라체-에베레스트BC-텅그러-니얼람-카트만두-방콕/인천

패키지 상품
하늘호수(남쵸)로 떠나는 티벳 8일
▸ 5/21,6/18,7/16,7/20,7/27,7/30 ▸ 189만원
티벳/네팔 문화탐방 11일
▸ 5/27, 6/3, 6/17, 7/15 ▸ 260만원

단체 배낭 상품
하늘호수(남쵸)로 떠나는 티벳 8일
▸ 5/21,6/18,7/16,7/20,7/27,7/30 ▸ 143만원
환상의 우정공로를 횡단하는 티벳/네팔 12일
▸ 5/21, 6/18, 7/23, 7/30 ▸ 173만원
티벳/네팔/인도 23일
▸ 6/20, 7/4, 7/29 ▸ 239만원
티벳 전문 혜초여행사(주) (02)733-3900 / www.hyecho.com

불교서적전문출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재밌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세요?
정운 스님에게 1분만 투자하세요.

수행자로 사는 보람과 기쁨, 스승과 도반들과의 따뜻한 인연 등이 정운 스님 특유의 맑고 정감 어린 문체에 실려 잔잔하게 표출된 이책을 읽노라면 문득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싶어진다.

"종교는 내속에 잠재돼 있는 에너지의 방향전환이다. 또 비우는 연습이다. 현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한다면 이보다 더 멋진 생활이 있을까 싶다."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 중에서

국판 | 320면 | 9,000원 | 정운 스님 | 여시아문

정운 스님 보령 세원사 주지
시 집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 <달을 보는 섬> <또 다른 이름되어> <그대 그대 자신으로>
산문집 <사람의 향기> <아직도 그곳엔 희망이 있더라>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
동인지 <길 없는 길을 가다> <이슬을 털며> 등

스님 요즈음 뭘 하십니까

현대불교신문 일간 인터넷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커뮤니티 '1분이면 마음이 열려요'에 들어가시면 정운 스님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